

보도시점 2025. 9. 15.(월) 15:00 배포 2025. 9. 15.(월) 14:30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 논의 -

간담회 개요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9.15일(월) 취임 첫 금융권 대외 일정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 BNK, JB 8개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자리는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3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에 대하여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융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금융위 -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8.15일(월) 15:00 ~ 16:00
-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이덕원 금융위원장,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방향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하였다.

첫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보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며,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둘째,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이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소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와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18년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서 생산적 금융 확대, 나아가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이 외에도 ESG 금융 강화, 벤처투자 확대, 공급망 금융 등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다음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지주회사가 전담조직 신설, 소액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장기연체 채권 일괄매입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문화의 확립과 함께 지주회사 차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완전판매 고도화, 소비자 보호 전문인력 확충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금융지주회장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 업계,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밝히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현지은	(02-2100-2831)
		담당자	사무관	이정찬	(02-2100-2824)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무이사	이인균	(02-3705-5184)
		담당자	부 장	심영민	(02-3705-5247)